

# 作中人物의 性格과 文体

—심층심리의 분석을 중심으로—

金 亭 子

## I.

意識의 水平面 밑에서 무엇이 진행되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無意識이라고 지적한 Freud는 사람들의 여러가지 실수와 忘却, 空想, 노이로제 각종정신 장애의 증상으로서 인간의 無意識은 나타난다고 하였다.<sup>1)</sup> 그 밖에 다른 도덕적 갈등이나 많은 것들이 무의식의 요소를 구성하는 것으로 무의식은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직 모르고 있는 우리 정신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빙산의 표층구조를 우리는 볼 수 있으나 물의 수평면 밑으로 얼마나 거대한 빙산의 뿌리가 있는 것인지 우리는 감히 그 深層構造를 알 수가 없듯이 無意識은 인간의 未知의 精神世界이기 때문에 未意識 또는 下意識 Unterbewußtsein이라는 용어로 Jung은 無意識을 설명하기도 했다. 人間의 근본적인 태도가 '意識의인 態度'라고만 생각하는 것은 하나의 誤謬가 될 것이다. 우리들은 意識世界에서보다 無意識의 世界에서 더 많은 人生을 살고 있는 셈이며 이러한 無意識이라고 하는 것은 무한한 가능성으로 향하는 에너지가 저장되어 있으므로 生命體를 탄생시키는 源泉이 될 것이며 창조적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여도 無意識에 대한 지나친 설명은 아닐 것이다.

그러면 이렇게 인간의 정신세계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무의식'이라는 요소가 인간의 深層心理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그래서 그것이 인간의 表層心理와 어떠한 代償作用 Kompensatorische Funktion

1) 李符永: 分析心理學, 一潮閣, 1978. p.49

을 일으켜서 성격형성에 조화를 가져오는가 하는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하는 것은 우리들의 본능적 리비도Libido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리비도의 렌즈를 우선 문학작품—특히 소설—속에서 등장하는 作中人物들의 심리상태에다 焦點을 맞추어 놓고 인간의 無意識—심층심리—이 그의 성격을 형성하는데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말하자면 作中人物의 성격을 형성하고 있는 요소를 의식세계에서만 파악할 것이 아니고 무의식의 심층심리와 콤플렉스를 그 분석의 원천으로 삼고 성격의 형태를 찾아낸다면 作中人物의 진정한 특이성이 드러날 것인데, 이것은 곧 그 作中人物의 性格을 통하여 작품을 만들어 놓은 작가의 특이성—文體—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이룬다.

왜냐하면, 作品에 나타난 作中人物의 심층심리를 드러내는 작업은 作品속에 녹아 있는 作家의 특이성을 찾아내는 것이요, 이것은 곧 작가의 文體를 포착하는 길이 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가령 金東仁의 ‘배따라기’의 경우에 등장인물들—형과 아내와 아우—중 ‘아내’의 심층심리를 다음과 같이 천착해 볼 수 있다.

### 〈文 1〉

그에게는 한 버릇이 있어서 맛있는 음식을 남겨 두었다가 좀 있다 먹곤 하는 것을 예사로 하였다. 그의 아내도 그 버릇을 잘 알터인데 그의 아우가 점심때쯤 오니까 아까 그가 아껴서 남겨 두었던 그 음식을 아우에게 주려 하였다. 그는 눈을 부릅뜨고 <못 주리랴>고 압호를 하였지만 아내는 그것을 보았는지 못 보았는지 그의 아우에게 주어 버렸다. 그는 마음 속이 자못 편치 못하였다.

### 〈文 2〉

오월 초순부터 영유고를 출입이 잦던 그의 아우는 오월 그믐께 부티는 고을서 며칠씩 묵어오는 일이 많았다. 함께, 고을에 침을 얻어 두었다는 소문이 퍼졌다. 이 소문이 있는 뒤로 아내는 아우가 고을로 들어가는 것을 벌써 보아도 싫어하고 며칠 묵어 나오는 때면, 곧 아우의 집으로 가서 그와 담판을 하며, 심지어 동서되는 아우의 처에게까지 못가게 하지 않는다고 싸우는 일이 있었다. ~ 마침내 그에게까지 와서 아우가 그런 못된 데를 다니는 것을 그냥 둔다고 해보자 한다. 그 꼴을 곱게 보지 않았던 그는 첫마더로 고향을 쳤다.

『네게 상관이 무에가? 듣기 싫다!』

『못난 둥이, 아우가 그런 델 땡기는 걸 말리지두 못하구!』

『이년, 무얼?』

그는 벌떡 일어섰다.

『못난 둥이!』

그 말이 채 끝나기 전에 그의 아내는 악 소리와 함께 그 자리에 거꾸러졌다.

<문 1>, <문 2>에서 ‘아내’의 심층심리 구조를 살펴보기로 하자. <문 1>에서는 남편에 몹시 좋아하는 음식에 대한 기호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면서도 감히 그 시동생을 위해 남편의 비위에 逆行하는 行爲를 과감히 행하고 만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아내의 시동생에 대한 무한한 애정의 욕구본능이 심층심리적으로 發露된 형태라고 할 수 있겠다. <문 2>에서는 시동생이 외도를 하고 있다는 소문에 아내는 ‘동서’보다도 더욱 더 짙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남편을 <못난 둥이>라고 과감하게 일컬으면서 남편의 폭행에 거꾸러지면서도 계속해서 <못난 둥이!>라고 고향을 치는 ‘아내’의 심층심리란 엄청나게 시동생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으로 포착된다. 그러므로 작품의 줄거리로 보아서 그의 아내와 시동생이 ‘취’를 잡으려는 현장을 목격당하고 남편의 불가피한 오해를 사게 되었을 때, 아내가 집을 뛰쳐 나갔다는 사실은 너무나 ‘필연적인 행위’가 된다는 것이다. 아내의 죽음은 아내의 저층심리 속에서 초자아<sup>2)</sup>가 엄청나게 작동했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아내의 죽음은 남편의 오해 때문이라는 종래의 표층심리적 해석에 반해 심층심리 속에서 범하고 있었던 여러가지 무의식적 犯接에 대한 스스로의 극렬한 가책 때문에 일어나는 ‘필연적 죽음의 행위’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이와 같이 심층심리와 콤플렉스를 중심으로 등장인물의 행동과 언어의 內面에 존재하는 심리를 파악하고 성격형성

2) 초자아(超自我)—초자아란 자아에 대해서 內在된 권위로서의 구실을 맡고 있는 것으로 자아가 외부의 권위 체현자에 대해 적대 또는 반항을 피할 때는 항상 자아에게 공격적 행동을 취하는데, 자아가 초자아의 도덕물에 복종하지 않을 때는 처벌과 파멸을 불사하여 죽음을 조려하게 할 수도 있다.

의 요인을 찾아내어 그 유형을 만들어 보면 작가 개인의 특성 —文體—이 드러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가설을 증명하기 위해 한국의 近代小說作家 3人 —김동인, 현진건, 엄상섭—을 근대소설의 대표적 작가로 간주하여 이들 3인의 작품을 각각 2~3편씩 임의로 선정해서 등장인물의 심층심리와 콤플렉스를 기본값대로 하는 성격유형의 분석을 시도하여 보기로 하겠다.

여기서 각자의 文體特性은 어떠한 性格類型 typical-character으로 나타나는 文體特性이나 하는 것을 파악해 내어 그 主眼點이 될 것인데, 이들 3人 作家는 반드시 대조적이 될 것이라든가 유사성을 띠는 것이라든가 하는 가설 밑에서 선정된 것이 아니고 다만 성격유형의 형성으로 보아 어떠한 특이성이 드러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비교 검토해 보기 위한 시도로서 선택한 것임을 밝혀둔다.

## II.

3인의 각 작품에서 주인공의 성격유형을 형성하는데 핵심적 역할을 하는 대사나 서술부분을 발췌하여 그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 A. 金東仁

a) 배따라기(1921년작)—1인칭관찰자 시점 배따라기는 1인칭관찰자시점으로 주인공 형과 아내와 아우를 삼각형으로 형성하고 있는 캐릭터의 짜입이다. 먼저 형의 성격상 특징을 나타내고 있는 부분을 발췌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 7. <형>

p.90 『죽일이년! 나가거라!』

『죽여라, 죽여라! 난 죽어도 이 집에서 못나가.』

『못 나가?』

『못 나가지 않구, 뉘 집이게……』

이 때다 그의 마음에는 그 못나가겠다는 아내의 말이 푸더리 박혔다. 그 이상 때리가 싫었다. 우두커니 눈만 흘기고 있던 그는,

『망할년 그럴 내가 갈라.』

하고 그만 문밖으로 뛰어 나가서

『형님 어디 잡니까.』

하는 아우의 말에는 대답도 아니하고 걸동리 탁죽집으로 뛰도 안돌아 보고 가서, 거기 있는 술파는 계집과 술상 앞에 마주 앉았다. 그날 저녁 얼근히 취한 그는 아내를 위하여 떡을 한판어치 사가지고 집으로 돌아왔다.

p. 91 그는 아내를 보는 순간, 마음에 가득차는 사랑을 깨달으면서 칼을 내어 던지고 뛰어 나가서 아내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이년! 하면서 들어오더니 뺨을 물어 뜯으면서 함께 이리저리 자빠져서 뒹굴었다.

p. 93 『상년, 좀 있으른 안 들어오리……』

그는 억지로 마음 먹고 그 자리에 드러 누웠다.

그러나 그의 아내는 밤이 가고 밝기는 커녕 해가 중천에 올라도 돌아오지를 않았다. 그는 차차 걱정이 나서 찾아보러 나섰다.

다음으로는 ‘아내’의 성격 특성을 나타내는 부분을 발췌하여 보기로 한다.

#### L. 〈아내〉

p. 29

품행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아내는 대단히 쾌활한 성질로서 아무에게나 말 잘하고 애교를 잘 부렸다.

그의 아내는 아내대로 〈아즈바니 아즈바니〉 하며 그들과 지껄이고 즐기며 그 웃기 잘하는 입에는 늘 웃음을 흘리고 있었다.

p. 89

특별히 아내가 그의 아우에게 친절히 하는 데는 그는 속상하여 못견디었다. 그에게는 한 버릇이 있어서 맛있는 음식은 남겨 두었다가 좀 있다 먹곤 하는 것을 예사로 하였다. 그의 아내도 그 버릇을 잘 알터인데, 그의 아우가 점심때 쫓오니까 아까 그가 아껴서 남겨 두었던 그 음식을 아우에게 주려 하였다. 그는 눈을 부릅뜨고 〈못주리라〉고 압호를 하였지만, 아내는 그것을 보았는지, 그의 아우에게 주어버렸다. 그는 마음속이 자못 편치 못하였다.

p. 93

그리하여 낮쯤 한 삼십리 내려간 바닷가에서 겨우 아내를 찾기는 찾았지만, 그 아내는 이전과 같은 생기로 찬 아내가 아니요, 몸은 물에 불어서 몸이나 크게 되고, 이전에는 웃음을 흘리던 예쁜 입에는 거품을 잔뜩 물은 죽

은 아내였다.

이상에서 몇가지 사실을 정리해 보면,

<형>은 Freud의 말처럼 ‘의식의 수평면 밑에서 진행되고 있는 거대한 무의식의 정신과정’을 느끼게 하는 人物로서 사랑의 표현은 극히 부분적이고 微細한 部分만 表層으로 나타날 뿐, 의식의 수평선 밑으로 쌓여서 도도히 흐르는 아내에 대한 애정을, 표층으로는 질투와 증오와 욕설과 폭행으로 나타내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는 愚直하고 고집이 세며 꾸밈을 모르는 성격 유형의 人物이다.

<아내>는 金東仁 자신의 표현처럼 쾌활하고 웃기 잘하는 여자로, 남편의 애정을 독차지할 만한 여자다. 그런데 그의 표층적 행위 구조에서는 시동생과의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아무런 의심받을 만한 犯接도 없었으나 내면세계 속에서, 말하자면 심층심리의 세계에서는 이미 그 시동생을 犯接한 상태이다. 각별히 친절을 보이는 행위라든지 고을안으로 들어가서 외도하는 시동생의 행위에 대해 누구보다 격분하는 심리라든지 기타 여러가지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아내의 ‘자살’은 남편이 고기밤이나 되라고 한 폭언이나 ‘오해’라는 사실 때문에 빚어진 것이 아니고 자기의 무의식의 심리상태에서 시동생을 인접한 사실에 대한 자책과 번민과 오뇌의 결과로서, ‘超自我’가 作動한 일종의 속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아내는 심층심리의 범죄의식을 ‘자살’로서 속죄할 수 밖에 없는 성격형성자로 구성하여 사건의 결말을 지었는데 살아서 처리하고 정리함으로써 창조적 인물 initiative character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아내는 상실하고 典型的 人物로서 머물고 말았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아내와 같은 해석을 할 수 있는 人物이 바로 ‘아우’이다. 아우가 집을 뛰쳐 나가 방랑하는 것 역시 그 형수를 무의식의 세계 속에서 犯接했다는 사실에 대한 죄의식 때문이다.

이와 같이 배따라기의 人物들은 무의식의 세계에서 발생하는 심리구조

가 표층에서 묘하게 形象化 되어서 나오는 성격유형의 人物들으로써 심층심리의 트리오를 형성하고 있다.

b) 狂炎 소나타 (1인칭 관찰자 시점)

광염소나타의 주인공 박성수는 아버지의 이름이며 아들의 이름이다. 그 성격적 특징을 나타내고 있는 묘사 부분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ㄱ. 백성수(아버지)

p. 145

그는 野人이었습니다. 광동스런 야성은 때때로 비위에 틀리면 선생을 두들기기가 예사이며 우리학교 근처의 술집이며 모든상점 주인들은, 그에게 안 얻어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ㄴ. 백성수(아들)

p. 148

그것은 순전한 야성적 음향이었습니다. 음악이라 하기에는 너무 험하고 무기묘이었습니다. 그러나 음악이 아니라기에는 거기서 너무나 괴롭고도 무겁고 험있는 감정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야반의 종소리와도 같이 사람의 마음을 음침하게 하는 음향인 동시에 맹수의 부르짖음과 같이 사람으로 하여금 소름 돋치게 하는 무거운 감정의 발현이었습니다. 아아 그 야성적 힘과 남성적 부르짖음, 그 아래 감추어져 있는 침통한 주검과 아픔, 순박하고도 아무 기교가 없는 그 표현!

p. 150

그는 나를 밀쳐버린 다음에 그 음보를 들고서 읽기 시작하였습니다. 아아, 그의 얼굴! 그의 숨소리가 차차 높아지면서 눈은 미친 사람과 같이 빛을 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것은 베에토벤 이래로 근대음악가에게서 보지 못하던 광포스런 야성이었습니다.

p. 154

비상한 열정과 감격은 있어도 그것이 그대로 표현 안되는 것이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즉 성수의 어머니는 몹시 어질은 사람으로서 어렸을 때부터 성수의 교육에 몹시 힘을 들여서 착한 사람이 되도록, 착한 사람이 되도록 이렇게 길렀습니다. 그러 그 어질은 교육때문에 그가 하늘에서 타고난 광포성과 야성이 표면상에 나타나지를 못하였습니다. 그 타고르는 야성적 열정과 힘이 음보로 그려 놓으면 아주 힘 없는, 말하자면 김빠진 술같이 되곤 하는 것이 모두 그 때문이었습니다. 그러. 절잡고 어진 교훈이 그의 친분을 못 발휘하게 한 셈이지요.

p159

이리하여 저는 마침내 사람을 죽인다 하는 경우에 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죽을 때마다 한개의 음악이 생겨났습니다. 그뒤부터 제가 지은 그 모든 것은 모두가 한 사람씩의 생명을 대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상에서 주인공 ‘백성수’는 그 아버지의 성격을 묘사한 부분에서 볼 수 있듯이 그 아버지의 복사판이라고 볼 수 있다. ‘엄청난 자극’이 있어 야만 예술작품이 창조되는, 야성적이며 발광적인 기교와 재질을 가진 성격의 소유자다. 그것은 곧 심층심리 속에 內在하는, 엄청나게 큰 무의식의 흐름 가운데 도도히 존재하는 심층적 재능을 의식세계의 재능으로 유도해내고 고통스런 작업과정 속에서 삶을 지탱하는 성격의 소유자라는 이야기가 될 것이다.

그에게 야성적이며 광적인 性向이 있다면 그에게는 빼놓을 수 없는 또 하나의 性向이 있다. 그것이 바로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선천적인 유순함과 선량함이다. 야성적인 것을 第1性向, 유순함을 第2性向이라고 일컬을 때 第2의 性向은 第1性向에 비해 劣性的이며 심층심리의이다. 第1性向이 詩的 예술성을 띤 것이라면 第2의 性向은 散文的 生活的(社會的) 성향을 띠고 있다. 第1과 第2가 조화를 이룰 때 인간은 ‘페르조나’를 쓰고 사회라는 곳에 발을 디디면서 群衆속으로 활보할 수 있다. 그러나 백성수는 이러한 第1, 第2성향이 순차적으로 나타나서 인간의 조화와 질서를 파괴시키고 마는 성격 유형으로 형성되어 있는 人物이다.

결과적으로 사회적으로 성공하지 못하는 性格類型을 이루고 있으며 부연한다면 아버지 백성수는 ‘술’로 인해 모든 것을 파괴시킨 성격 유형을 형성하는 人物이며 東仁의 作品에는 이렇게 잘못된 디오니소스가 자주 등장한다.

### C) 발가락이 닳았다(1931년작) (I인칭관찰자시점)

‘발가락이 닳았다’의 주인공 M은 방탕생활의 종이다. 그의 성격 특성을 나타내고 있는 부분을 발췌해 보기로 한다.

p161

M은 학생시절부터 대단한 방탕생활을 하였습니다. 방탕이라야 금전상의 여유가 부족한 그는 가장 하류에 속하는 방탕을 하였습니다. 오십전 혹은 일원만 생기면 즉시로 우동집이나 유락으로 달려가던 그였습니다.

p. 162

중하다기도 그만큼 중하게 앓은 뒤에, 지금 그게 경한게냐 중한게냐 묻는 것이 농담으로 밖에는 들리지 않았으므로 M의 얼굴은 역시 무겁고 어두웠습니다. 무슨 중대한 보고를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눈을 푹 내려뜨고 나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p. 163

그의 얼굴은 이날 유난히 어둡고 무거웠습니다. 그는 음식에는 거의 손을 대지 않고 술만 들이켜고 있었습니다. 본시 말이 많지 않은 그가 이날은 더욱 입이 무거웠습니다.

몹시 취하여 더 술을 먹지 못하리만큼 되어서 그는 처음으로 자발적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중환이 된 그의 눈은 무시무시하게 번뜩였습니다.

p. 169.

『제다가 날 닮은 데도 있어』

『어디』

『이보게』

M은 어린애를 왼편 팔로 가만히 움켜져 불안하면서 오른 손으로 제 양말을 벗었습니다.

『내 발가락 보게, 내 발가락은 다른 발가락과 달라서. 가운데 발가락이 그 중 길어 쉽지 않은 발가락이야 한데……』

M은 강보를 들치고 어린애의 발을 가만히 꺼내어 놓았습니다.

『이놈의 발가락 보게 꼭 내 발가락 아닌가 닮았거든……』

~

나는 M의 마음과 노력에 눈물 겨워졌습니다. 커다란 의혹 가운데서 그 의혹을 어떻게 하여서든 살펴보려는 M의 노력은 인생의 가장 요절한 비극이었습니다.

주인공 main character M은 사회적으로 실패한 성격유형이다. 술과 形而下學的 慾望의 化身으로 형성되었던 그는 자기 자식이 아닌 아들을 안고 발가락이 닮았다고 몸부림치듯이 억지로 믿으려고 바둥거리는 불안한 인격으로 형성되어 버린다. 안간힘과 절망적인 믿음으로 일어서 보겠다는, 눈물겨우리 많치 가련한 성격형성자가 되어 있다.

이러한 성격유형은 심층심리의 세계에서 볼 때 가장 자기 자신에 대한 긍지가 서 있지 않은 성격 형성자가 表層심리의 세계에서 자기 자신을 과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술의 힘을 빌어 과잉의 욕망을 구사하여 성격을 파괴시키게 되는 例라고 보겠다.

#### d) 東仁의 typical-character로 본 文體

이상의 세 작품에서 東仁이 만들고 있는 작품의 人物에서 그 성격 典型 typical character을 뽑아낼 수 있을 것이다.

남자는 愚直하고 선량하며 고집이 세고 무뚝뚝한 성격의 소유자이거나 야성적이며 발광적, 창조적 예술성을 띤 性格 類型으로 나타나서 주로 사회적인 관점에서는 애브노멀하거나, 실패하는 성격의 소유자들으로써 구성된다. 또한 실패의 원인으로 ‘술’을 등장시키는 경우가 많다. 술로 인해 파괴적 성격을 가진 人物로 등장시킴이 많다. 東仁에게서 여자는 성격 형성의 범주에서 거의 무시되거나, 부각되더라도 다만 수동적이고 頑賞品的인 유순한 선량한 character로서 당연히 나타나야 한다고 믿는다. 이러한 성격유형의 구성들이 東仁의 성격형성으로 본 文體特性을 이루고 있다.

### B. 玄鎮健

이번에는 빙히 현진건의 작품에서 그 성격유형을 찾아내 보기로 한다.

#### a) 술권하는 사회(1921년작)

주인공의 성격유형을 형성하는 부분을 우선 발췌해 보기로 한다. 술권하는 사회에서는 주인공(아내와 남편)의 성격을 나타내는 부분은 아내와 남편의 행동과 대화의 교환에서 엿섞이어 나타나고 있다.

p. 260

어느날 새벽 아내가 어렴풋이 잠을 깨어 남편의 누웠던 자리를 더듬어 보았다. 취이는 것은 이불자락뿐이다. 잠결에도 조금 실망을 아니 느낄 수 없었다. 잃은 것을 찾으려는 것처럼 눈을 부스스 떴다. 책상 위에 머리를 쓰러뜨리고, 두 손으로 그것을 움켜쥐고 있는 남편을 보았다. 희미한 의식이 돌아옴에 따라, 남편의 어깨가 들썩들썩 움직임도 깨달았다. 훌훌 느끼는

소리가 귀를 울린다. 아내는 정신을 바짝 차리었다. 불현듯이 몸을 일으켰다.

p. 295

남편은 苦笑한다.

『틀렸소 잘 못 알았소. 화중이 술을 권하는 것도 아니고, 하이칼라가 술을 권하는 것도 아니고. 나에게 권하는 것은 따로 있어. 마누라가 내가 어떤 하이칼라 한테나 홀려다니거니 하고 조심을 했으면 그것은 헛겨정이지 나에게 하이칼라는 아무 소용도 없소. 나의 소용은 술 뿐이오. 술이 창자를 휘돌아 이것저것을 잊게 만드는 것을 나는 취할 뿐이오. ~ 아아 有爲有望한 머리를 알코올로 마비시킬 수 없게 하는 그것이 무엇이란 말이오?』

p. 267

『술 아니 먹는다고 흉장이 막혀요?』

남편의 하는 짓은 본체만체하고 아내는 얼굴을 바라보더니, 그 다음 순간에는 말할 수 없는 고뇌의 그림자가 그의 눈을 거쳐간다.

p. 267

『아아 답답해!』

문득 기막힌 듯이 외마디 소리를 치고는 벌떡 몸을 일으킨다 방문을 열고 나가려 한다.

왜 내가 그런 말을 하였던고? 아내는 불시에 후회하였다. 남편의 저고리 뒷자락을 잡으며 안타까운 소리로.

『왜 어디로 가세요. 이 밤중에 어디로 나가세요. 내가 잘못하였습니다.

이제는 다시 그런말을 아니 하겠습니까. 그러게 내일 아침에 말하자니까...』

p. 268

『가버렸군, 가 버렸어!』

그 구둑소리를 영구히 아니 잃으려는 것처럼 귀를 기울이고 있는 아내는 모든 것을 잃었다 하는 듯이 부르짖었다. 그 소리가 사라짐과 함께 자기의 마음도 사라지고 정신도 사라진 듯하였다. 심신이 텅비어진 듯하였다. 그의 눈은 하염없이 검은 밤안개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다. 그 사회란 독한 꼴을 그려보는 것 같이 쓸쓸한 새벽바람이 싸늘하게 가슴에 부딪친다. 그 부딪치는 서술에 잠 못자고 피곤한 몸이 부서질 듯이 지긋하였다.

죽은 사람에게서뿐 볼 수 있는 해쓱한 얼굴이 경련적으로 멀며 어조로 소곤거렸다.

『똥쓸 사회가 왜 술을 권하는고!』

‘술권하는 사회’의 남편은 사회에 대한 불만과 인생에 대한 회의, 체념적이며 절망적인 심층심리를 ‘술’로써 무마시키려고하는 성격형성자다.

남편이 밤중에 일어나서 고통스럽게 嗚咽하는 것은 심층심리 세계속에서의 고통한 몸부림을 표층구조로만 해석하는 ‘아내’가 이해할리 만무하다. 남편은 아내를 미워함도 사랑함도 아닌, 의무와 도덕률에 얽매인 인간관계로만 간주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아내’의 경우 ‘남편’을 하늘과 같이 위대하고 고귀한 존재로 신뢰하고 있으며,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라든가, 사회라든가, 自我의 몸부림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다만 골치 아픈 세계이거나 모르는 세계에 불과하다. 말하자면 아내는 자신의 심층심리를 파악해 낼만한 지적능력이 없다. 아내는 다만 표층심리의 세계 속에 스스로가 존재한다고 믿을 뿐이다. 그러므로 어떠한 내면적 심리가 표층으로 발로 되어 나오는 지를 파악할 수 없도록 형성되어 있는 성격유형의 소유자다. ‘아내’의 성격유형은 李朝의 女性典型的 殘影이며 잔재에 불과하다. 역시 typical character의 범주를 결코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성격유형이다.

#### b) 貧妻(1920년작)

貧妻의 주인공의 성격특징을 나타내는 부분은 주로 ‘처’와 ‘나’의 대화 부분에서 나타나고 있다.

p. 247

잠깐 있다가 불쾌한 빛을 나타내며

『급작스럽게 살도리를 하라면 어찌할 수가 있소, 차차 될 때가 있겠지!』

『아이구, 차차란 말씀 그만 두구려. 어느 천년에』

아내의 얼굴에 붉은 빛이 질어지며 전에 없던 흥분한 어조로 이런 말까지 하였다.

자세히 보니 두 눈에 은근히 눈물이 괴있더라.

나는 잠시 멍멍하게 있었다.

성면 불길이 치받쳐 올라온다.

나는 참을 수 없었다.

『막별이꾼 한테 시집을 갈 것이지 누가 내게 시집을 오랬소! 저 따위가 예술가의 처가 다 뭐야!』

사나운 어조로 불풍스럽게 소리를 펌 질렀다.

『에그!……』

살짝 얼굴빛이 변해지며 어이없이 나를 보더니 고개가 점점 수그러져버

한밤을 두방을 방울방울 장판위에 떨어진다.

p.268

『얼마 안되니 그렇게 될 거예요』

라고 힘있게 말하였다.

『정말 그럴 것 같소?』

나는 약간 흥분하여 반문하였다.

『그럼은요, 그렇고 말고요』

아직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은 무명작가인 나를 저 하나이 걸이걸이 인정해 준다.

그러길래 그 강한 물질에 대한 본능적 요구도 참아가며 오늘날까지 범시 눈살을 찌푸리지 아니하고 나를 도와 준 것이다.

貧妻의 「 남편 」은 사회생활에서의 페르조나로서 볼 때에는 일종의 낙오자로 형성되어 있다. 작가 지망인 그는 자신에 대한 열등의식을 버릴 수 없으나 소설을 쓰고 있다는 사실에 무한한 자부심을 가지며 미래에 대한 꿈과 자신감을 지니고 있다. 자신감은 표층구조의 심리이며 버릴 수 없는 열등의식은 저의식의 심리세계속에 감추어 두고 있다. 이 두가지의 심리상태가 이따금 혼선을 이루고 표층과 심층으로 곤두박질 할 때 아내는 얼굴 빛이 번해지며 어이없어 하고 눈물이 방울방울 흘러 내린다. 「 아내 」의 성격유형은 「 슬권하는 사회 」에서의 아내와 거의 同一한 성격유형의 人物이다. 남편에 대한 신뢰, 존경, 애정은 절대적이며 맹목적이다. 남편의 하는 일은 이해하지는 못하나 다만 절대적으로 존경하는 데서 오는 신뢰감으로 인해 남편의 일이 옳을 것이라고 믿을 뿐이다. 그러나 때때로 견딜 수 없는 불안과 회의와 고통이 올 때는 어쩔 수 없이 눈물이 흘러 내린다. 이것은 남편에 대한 심층심리의 表出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貧妻에서의 「 아내 」역시 李朝女人의 殘影을 답습한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전형적 성격유형이다.

C) 운수 좋은 날(1924년작)

‘운수 좋은 날’의 주인공 「 김집지 」의 성격특성을 두드러지게 나타낸 부분을 발췌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p. 324

그때 김침지는 열화 같이 성을 내며 『에이 오라질 년 조롱복은 할 수가 없어. 못 먹어 병, 먹어서 병, 어쩌란 말이야! 왜 눈을 바루 뜨지 못해!』 하고 김침지는 앓는 이의 뺨을 한번 후려 갈았다. 홉똥 눈은 조금 바루어 졌건만 이슬이 맺히었다. 김침지의 눈시울도 뜨끈뜨끈하였다.

이 환자가 그러고도 먹는 때는 물리지 않았다. 사흘전부터 설렁탕 국물이 마시고 싶다고 남편을 졸랐다.

『이런 오라질 년! 조밥도 못 먹는 년이 설렁탕은 또 처먹고 지탈병을 하게』

라고 야단을 해 보았건만, 못사 주는 마음이 시원치는 않았다. 인제 설렁탕은 사 줄 수도 있다. 앓는 어미 곁에서 배고파 보채는 개똥이(세살먹이)에게 죽을 사 줄 수도 있다. 팔십전을 손에 쥔 김침지의 마음은 튼튼하였다.

p. 392

『이 눈깔! 이 눈깔! 왜 나를 바라보지 못하고 천정만 보느냐. 응』 하는 말 끝에 목이 메었다. 그러자 산 사람에게 눈에서 떨어진 닭의 똥같은 눈물이 죽은 이의 멍뭍한 얼굴을 어롱어롱 적시었다. 문득 김침지는 미칠 듯이 제 얼굴을 죽은 이의 얼굴에 한데 비비대며 중얼거렸다.

『설렁탕을 사다 놓았는데 왜 먹지를 못하지. 왜 먹지를 못하나…… 괴상하게 오늘은! 운수가 좋더니만……』

남편 김침지는 아내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다. 표층적으로 표현하기를 스스로 꺼리고 쑥스러워 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심층심리의 세계 속에서 아내에 대한 따뜻한 인간애와 연민을 느끼는 것이 이따금 표층으로 흘러 나온다. p. 234 下段의 “눈은 조금 바루어 졌건만 이슬이 맺히었다. 김침지의 눈시울도 뜨끈뜨끈 하였다”는 표현은 이를 단적으로 설명하는 성격 묘사의 일부분이다.

요는 김침지의 그것은 ‘술권하는 사회’나 ‘빈처’에서 아내에게 향하는 남편의 심리상태와 본질적으로 같으나 다만 김침지는 좀더 무뎉뎉하고 무식하다는 것이 差異點이라고 할 수 있겠다.

여기서 특히 괄목할만한 사실은 ‘김침지’의 욕설이 다만 욕설을 위한 욕설이 아니고 애정을 역설적으로 나타내는 성격유형에서 기인하는 역설적 표현에 불과하다는 사실이다.

말하자면 內面世界의 심층심리 속에서 따뜻이 피어오르는 인간적 애정을 다만 육설로써 逆으로 表出하는 성격유형이라는 점이다.

#### d) 현진건의 typical-character로 본 文體

이상에서 빙허의 작품에 나오는 성격유형을 종합해보면 남편(남자)은 한결같이 사회에 대한 불만, 회의, 체념, 절망적 생활태도를 심층심리 속에 가지고 있으며 그러면서도 끈덕지게 무엇인가를 가다리는 태도를 가지는 성격유형으로 나타나고 ‘아내’(여자)는 하늘처럼 남편을 섬기고 위대하고 절대적으로 고귀한 존재로 신뢰하도록 형성해 놓았다. 거기다가 ‘아내’는 한결같이 新學問을 터득하지 못한 無知한 아내지만 표층구조의 심리 밖에 이해할 줄 모르는, 말하자면 자신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살아가는 성격형성자들이다. 현숙하고 선량하며 인간적인 성격유형을 형성하고 있다. ‘술권하는 사회’의 아내와 남편의 태도는 ‘빈처’의 그것과 大同小異하다.

운수 좋은 날의 김침지도 역시 현대와 멀시를 받던 ‘인력거군’으로 형성함으로써 表層으로는 몰인정한 것 같이 보이는 인간 유형으로 만들어 놓았으나 아내에 대한 따뜻한 애정이 심층의 가슴 안으로 흐르는 성격유형으로 만들어 놓아, 지아비의 哀歌를 느끼게 하는, 곧 사회에 대한 불만과 회의, 체념, 절망을 느끼게 하는 인간유형으로 만들어 놓았다. 이것이 빙허의 작품속에서 형성되고 있는 성격유형상으로 본 文體特性이다.

### C. 廉想涉

다음으로는 橫步 염상섭의 작품에서 그 성격유형을 찾아 내 보기로 한다.

#### a) 絶穀(1956년작)

‘영탁영감’과 ‘어머니’의 성격유형이 드러나고 있는 부분을 발췌해보면 다음과 같다.

p. 121

늙은 아들은 혈곡이 벌어져 가지고는 아무래도 체질이 약한 영감이 한 두 번이라도 더 쥐어 질리고 힘이 부쳐 험테벌떡 방에 들어가 누워버리면 그날부터 사흘은 곡기를 끊고 일어나지를 않는다.

p. 125

상을 들고 아랫방 옷간에 들어가서 돌아 누웠는 시아버지를 깨웠다.  
『응, 아가나? 나 안먹어. 먹구 싶지 않다 내가라.』

p. 125

『애, 가니? 아버지두 기동하면 이제 병원으로 보러가마.』 하고 업혀나가는 딸의 뒤에다 소리를 치다가 가슴이 막혀서 반은 울음섞인 소리처럼 헛허허하고 빈 속에서 터져나오는 소리를내며 『금메야 너오는 길에 아주 영구차 하나 불러가지구 오너라. 나두 아주 이 길에 담아내가다우.』하고 소리를 질렀다.

p. 131

아랫방문이 가만히 열리더니 영감의 허연 그림자가 휘청휘청 나와서 비틀거리며 옆방으로 들어갔다. 한참만에 금메가 송충을 가지러 안방에서 나오다가 보니 시아버지가 병실에서 기듯이 나오더니 자기방으로 쓰러졌다. 금메는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p. 122

시어머니는 어려서부터 귀엽게 자라서 도무지 잡곡은 입에 털 수가 없다는 것이다.

p. 124

『않는 애가 먹긴 뭘 먹겠기에, 공연히 부엌 속에서 없애버리느니 성한 애들이나 먹여야지.』  
하고 혼잣소리를 한다.

p124

『남은 육십, 칠십에두 자동차만 뽕뽕 날리며 나뉘디다! 당신은 머리가 셋수? 허리가 구부러졌수? 입만 살았구려 왜 예수님을 쳐들우!』

p. 127

『애야, 입맛이 제쳐져서 하는 수 없지만, 늙은이가 고깃국물이 생겼으면 마셔 돌일이지 뭐 때문에 트집야. 멍석대죄를 드리라시던? 애, 그 장국국을 내나 먹자. 그러구 그 돈 얼마 남았니, 이리 다우, 애 과일이나 좀 사다 줘야지. 하고 마님은 일어섰다. 마님은 머느리가 배 놓는 돈을 받아가지고 가게에 나가서 사과를 사다가 아이들부터 하나씩 안기고, 병인에게도 짝아 들여보내게 하고는 영감 대신으로 고깃국에 밥찬을 먹었다.

p. 128

혜숙이가 뜰저 놓기 시작하자. 아이들이 어서 입원시키라고 그렇게 졸랐  
전마는 머뭇머뭇하고 있었던 것도 결국자기 혼자 매달려서 병구원을 해내지  
못할 것이니 그 고생을 당해 낼까 무서워서 딱 결단을 못하였던 것이다.

p. 134

혜숙이(病人: 혜병)의 사망후 사망진단서를 끊어온 어머니에게  
『에그 어머니 애쓰셨어요 '시장하실텐데 어서 진지부터 잡수셔야지.』  
금폐가 밥상을 차리려 부엌으로 부리나케 뛰어들어 간다.  
『응, 얼른 차려와.』

이상에서 영탁영감의 성격은 인정있고 양보심 있으나 소견이 좁고 주눅  
이 잘 들고 항상 심층심리의 세계에서는 被害意識을 가지고 있어 앙투아  
지기를 잘하는 성격유형을 형성하고 있다. 어머니는 잔인한 모정을 가지고  
부부에도 대단치 않으며 인간미가 부족한 이기적인 요소가 많은 어머니  
다. 인간이 가난이란 극한 상황에 처할 때 자기보호의 본능에 더 충실해  
지고자 하는 Libido가 작용한다는 것은 周知的인 이야기다. 따라서 빈처  
의 '아내(여자 주인공)'와는 전혀 다른 유형으로 나타나지만 극한 상황속  
에서의 인간의 본질과 본능의 심층심리구조를 표층으로 다소 많이 表出시  
켰다는 것이 특이할 뿐 그 성격형성에 있어 성격 典型的의 범주를 벗어난  
것은 아니다.

b) 標本室의 靑개구리 (1921년 작)

주인공 김창억과, 나, 덩석부터 생물선생과 대동강변에서 잠깐 만난 그  
장발객과의 사이에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며 몇가지  
구절들을 발췌해 보고자 한다.

p. 19

그러나 귀밑부터 귀알같은 수염이 까맣게 덮인 주먹만한 하얀 살을 힐끗  
볼제 나는 앓! 하며 깜짝 놀랐다. 감전된 것 같이 가슴이 선뜻하며 심한  
전율이 전신을 압도 하였다. 그리고 그 다음 순간에는 나도 안심된 가슴에  
이 상한 의혹과 맹렬한 호기심이 일시에 몰밀 듯 하였다. 중학교 실험실의  
박물선생이 따로 온 줄로만 안 것이었다. 그러나 아무 이유없이 무의식하  
게 경건한 혹은 숭엄한 느낌이 머리 뒤를 메미는 것 같아서 나는 무심 중

간에 모자를 벗고 인사를 하였다 .

p. 20

그러나 자기의 말에 조금도 부지런하고 과장이 없다고 생각한 그는 웃는 것이 모리어 이상하다는 뜻이 ছিল는 시선으로 물끄러미 웃는 사람을 내려다 보다가 험하고 코웃음을 치고 외면을 하였다. 나는 이 사람이 미쳤다고 하여야 좋을지 모든 것을 大悟하고 모든 것에서 해탈한 대철인이라고 하여야 좋을지 몰랐다.

p. 23

~대원군이나 퇴신 듯이 서양놈들이 입다 남은 양복조각들을 떨쳐입고 그 더러운 놈들 밑에서 굶질굶질하며 돌아다니는 것을 보면 이 주먹으로 대구리틀——』

하여 새까만 기찻한 주먹을 치들었다. 그때의 그의 눈에는 이상한 광채가 돌고 얼얼은 경련적으로 부르고 떨리면서 뒤틀리었다. 나는 무심히 쳐다보다가 잠적놀랐다.

p. 26 上

홍소(哄笑), 횡담(曠談), 조롱 속에서 급격히 피로를 느낀 그는 어슬어슬 하여 오는 으스스한 산 밑을 헤매는 쌀쌀한 가을 저녁 바람과 음산하고 적막한 암곡이 검은 이빨을 악물고 꺾휘 한숨을 쉬며 덩벼들어 불고 혼드는 삼층 위에 섰은 반송이 같은 푸연 머리를 움켜쥐고 곁에 누가 있는 것도 잊은 듯이 기둥에 기대어 앉았다.

p. 29

—독서와 애곡—이것이 삼년전의 그의 한결 같은 일과 이었다.

p. 43 上

아아, 그 위대한 건물이 홍염의 광란속에서 구름 탄 선인같이 찬란히 떠오를 제 그의 환희는 어떠하였을까. 그의 입에서는 반드시 할렘투야가 연발되었을 것이요. 그리고 일편의 시가 흘러나왔을 것이요. —마치 베토가 홍염 가운데의 로마 대도를 바라보며 하아트에 맞춰서 시를 읊듯듯이, 아아, 그는 얼마나 위대한 철인이며 얼마나 행복스러운가— 반열반온의 자기를 돌아볼 제 진심으로 자기자신을 매도(黜倒)치 않을 수 없소……

기뻐하리라고 한 Y의 편지는 오직 갯빛의 낭던어리틀 내 가슴에 던져 주었을 따름이었다. 나는 여기저기 팔라가며 또 한번 읽은 뒤에 편지장을 책상위에 펼쳐놓은 채 드리 누웠었다. 음산한 방축은 무겁고 울적한 나의 가슴을 더욱 더욱 질식케 하는 것 같았다. 까닭없이 웃고 싶은 증이나서 가만히 누웠을 수가 없었다. …… 나는 뛰어들어서 방밖으로 나섰다.

p. 44

그날밤에 나는 아무것도 할 용기가 없어서 몇몇 청년이 불러와서 떠드는 속에 가만히 드러누웠었다. 어쩐지 공연히 울고 싶었다. 별로 김창역을 측은히 생각하여 그의 운명을 추측하여 보거나 삼중집 소화(燬火)한 후의 행동을 알려는 호기심은 없었으나 지금쯤은 어디로 돌아 다니나 하는 생각이 나는 동시에 작년 가을에 대동강가에서 잠깐 본 장발객의 하얀 신경질적 얼굴이 머리에 떠올랐다.

p. 44

...일년 열두달 열어보는 일이 없어 꼭 달은 보통문밖에 보금자리 같은 집 더미 속에서 우물우물하기도 하고 혹은 그 앞 보통강가로 돌아다니는 걸인은 오직 대동강가의 장발객과 형제거나 다만 절인으로 알 뿐이요 동리에서도 누구인지는 아무도 몰랐다.

이 작품은 각종 인물들의 심층심리구조가 가장 많이 나타나 있는 작품으로 동작 人物들의 심리는 대개 심층심리의 관점에서 묘사되어 나타난다. 덩석부리 생물선생은 청개구리를 메스로 해부하는 흉악한 加害者나 범죄자로서의 존재가 아니고 다만 메스에 의하여 청개구리를 加害하도록 종용받은 또 하나의 피해자라고 볼 수 있다. 대동강가에서 잠깐 발견한 흰 머리의 장발객과 김창역의 광적인 장발에서 덩석부리 생물선생을 발견하고 驚愕에 차는 것은 三重奏(trio)의 오우버랩으로 이루어지는 이미지이다. 「덩석부리」라는 語源 자체가 친숙감을 주는데 아무런 저해요소가 없고 ‘나’의 불면을 초래하는 요소 자체도 생물선생이 아닌 반쪽이는 ‘메스’가 되기 때문에 이런 여러가지 조건으로 보아 덩석부리 생물선생을 加害者的 성격으로 간주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작품의 성격형성은 덩석부리와 ‘대동강가의 장발객’과 ‘김창역’과 ‘나’의 존재가 하나로 同質化 Identification 함으로써 혼합된 상징적 성격형성을 하게 되는 캐릭터로서 나타나는 데, 이런 점으로 보아 황보의 「표본실의 청개구리」는 성격 유형의 형성으로 본 文體의 관점에서는 아주 특이한 文體構造를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C) 一代의 遺業

주인공 ‘어머니(파수역)’의 저층심리가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묘사를 통

하여 성격유형을 찾아낼 수 있는 부분을 발췌하여 보기로 한다.

p. 102

기현 어머니는 요를 걸어놓고 방을 쓸려다 말고 양복으로 가서 만저도 보고 후루후루한 와이샤쓰와 폭신한 털샤쓰를 걸린채 들추어도 모곤 하였다. 고운데가 붙은 이런 데서 좋아키 냄새가 나겠지마는 무슨 착각인지 향긋한 김이 코 끝을 건드리는 것 같아서 공연히 질겁을 하여 돌쳐서나. 말고 다시 양복에 얼굴을 들이대어 보고는 재떨에 얼굴이 빨개졌다. 방을 쓸고 걸레질을 하고 요를 다시깔고 하는 동안에 기현 어머니는 꼭 상기도 되고 숨이 가빠졌었다.

d. 103

김선생이 뒤에서,  
『저기 들소, 내 들어가 드릴께』

하고 덤비는 때는 얼굴이 빨개지켜 한참 씨양이질을 하는 것이 주일때 편에서 더 괴로웠다. 동네집 어떤네들이 볼까 보아서도 겁이났다. 그러나 예전에 영감이 살아서도 (혹은 영감이니까 힘도 없었겠지만) 들문을 들어가 주마 하는 말은 못들어 보았다. 남의 친절이 고달고 그리웠다.

p. 104

『아, 쨌 때 양친하겠다. 영등걸이 뭐 만들겠다. 아주 놀이붙는 게구려.』  
요새도 동리 아낙네가 모여 앉으면 (똥방 서방님)하며 놀리었다. 기현 어머니는 공연히 얼굴이 붉어지는 것 같았다.

p. 105

기현 어머니는 귀를막고 싶었다. 분하여 얼굴이 상기가 되나 단할 말도 못되었다. 그러나 얼굴이 빨개진 것을 또 이상이 보지나 앓을까 애가 씌었다.

p. 106

~흠질하던 바늘끝에 손을 찔릴뻔하고 앞섰을 돌려 내었다. 뜯었다 하였는지 뿔 해를 타느질을 했었지만 이런 일은 지유이다.

『내가 미쳤나, 왜 이러는 거야…….』

혼자 화를 내고 경신을 가다듬으려 하여야 별 수가 없었다. 하도 지치면 인두관을 내던지고 자리위에 쓰러지며 벽에 걸린 돌아간 영감 사진을 멍하니 쳐다 보다가는 겁아버리고 만다.

p. 106

방에 들어가 보니 꿈다람 남모본단 요가 폭신한 것을 보자 물기 있는 언손을 녹일겸 요 밑에 손을 파묻으며 요위에 뺨을 대고 잠깐 었더어 있으려

니까 몸이 다시 혼곤히 퍼지며 단잠이라도 올 것 같았다. 포근한 기분에 잠겨 그대로 차마 일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판인데 밖에서 우중우중 구둑소리가 난다. 기현 어머니는 소스라쳐 일어나며 가슴이 덜렁거렸다.

~

『천천히 하세요. 난 곧 나갈테니까』

하고 구두를 벗고 성큼 들어선다. 기현 어머니는 질겁을 하며 일어서다가 엉덩이로 남자의 외투를 스치자 몸이 오그라 붙는 것 같았다. 뒷마루로 나 서면서도 뒤에서 억센 팔이 껴안은 듯 싶어 건신이 부르르 떨렸다.

p. 112 下

『깨셨어요』

장지가 살며시 열리며 웃는 입, 코, 눈이 캄캄한 데서 차레차레 나타난다. 장지밑에 지키고 앉았던 사람 같다. 김선생은 쳐다보며 소리없이 웃기만 하였다.

~

기현 어머니는 눈이 짙은 풀이 밤을 꼬박 밝힌 모양이다. 새벽녘의 식어가는 밤안은 쌀쌀하였다. 그러나 김선생 앞에 덩그러니 꿇어 앉은 기현 어머니는 추운 줄도 몰랐다. 건같이 몸이 떨리지도 않았다.

『추워 보이는군요, 이 이불이라도 두르지요?』

그러나 기현 어머니가 「아뇨」 하고 도리어 잡지 밑으로 꿇부니를 빼는 것을 보고 김선생은 벌떡 일어나서 못에 걸린 자기 외투를 메어다가 기현 어머니 등에 걸쳐 주었다. 기현 어머니는 가슴이 덜렁하고 얼굴이 빨개지며 아무 소리없이 외투를 둘러잡아 들고 일어나서 제자리에 다시 들며 웃음이 되어 오르는 것을 장지밖에서 들을까 보다 이를 깨물고 참았다.

p. 119

『듣기 싫어요. 형님 상청은 없지만 자식 버리구 상청 버리구 나갔으면 남 똥는데 다시 무슨 말이오. 어디를 다시 들어 온다는 거요!』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며 위협을 하는 것이다.

과수택(기현어머니)은 비록 하숙인 ‘김씨’를 표충적으로 犯하지 않았으나 저층실리에서는 犯接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시아주버니의 고함소리(p. 119. 下段)나 동네사람들의 입질에 대해 저층실리에서부터 몇 몇한 변명이 나올 수 없다. 그는 착하고 수줍고 양전하나 평범한 욕망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는 인간적인 몸부림의 전형적인 성격형성에 불과하다.

d) 橫步의 typical-character로 본 文體

橫步의 작품속 ‘남자’는 한결같이 ‘피해의식’에 사로 잡혀 있고 손해보고 짓밟히는 인간의 진실과 純心을 성격 유형으로 형성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절곡의 ‘영탁영감’이나 ‘표본실의 청개구리’의 ‘김창억’이 그러하다. — 물론 김창억은 ‘나’와 ‘생물선생’과 ‘장발객’과 ‘청개구리’의 이미지로써 오우버랩되는 同質化를 시도했지만, — 橫步 작품속의 ‘여자’는 독자로 하여금 호감이 가게 하지 않는 성격 유형으로 형성되어 있다. 말하자면 조금도 ‘여자’를 美化시키지 않거나 表層심리상으로는 美化를 시키지만 결국 심층심리에서 엄청난 문제점을 안고 있는 성격 형성자로 변모시켜 도덕적 타락녀로 만들어 버린단든지 하는 여자의 성격 유형으로 형성된 文體를 이루고 있다.

### Ⅲ. 三人의 작품속 성격유형 특성으로 본 文體比較

이상에서 作中人物의 성격유형을 살펴보고 그것을 심층심리와 콤플렉스의 잣대로 파악하고 관찰함으로써 人物의 성격을 類型化시켜 보았다. 그러면 이들 작가 상호간에는 어떠한 특이성과 동질성이 있는가, 이것을 종합하여 각자의 文體의 특성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1) 金東仁의 작품속 ‘남자’는 愚直하고 선량하며 고집이 세고 무뚝뚝한 성격의 소유자이거나 야성적이며 발광적·창조적 예술성을 띤 性格類型으로 나타나서 사회적인 관점에서는 애브노말하거나 실패하는 성격의 소유자들로서 구성된다. 또한 실패의 원인으로 ‘술’을 등장시켜 술로 인해 파괴적 성격을 가지는 人物로 등장시킴이 많다. 東仁에게서의 ‘女子’는 성격 형성의 범주에서 거의 무시되거나, 부각되더라도 다만 수동적이고 頑賞的이고 유순하고 선량한 성격으로서 나타나야 한다고 믿는 文體 특성이 있다.

2) ‘빙허’의 경우 ‘남자’(주로 남편)는 한결같이 사회에 대한 불만, 회의, 체념, 절망적 생활태도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래도 무엇인가를 기다리는 태도를 가지는 성격유형으로 나타나고 여자(주로 아내)는 남편을 하늘처럼 고귀한 존재로 신뢰하고 존경하는 인물로 만들어 놓았다. 無知하나

현숙하고 선량하며 인간적인 애정을 가진 性格 유형으로 만들어 놓음은 ‘빙허’ 자신의 理想的인 女性類型이 아마 이러한 典型性을 띤 人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일으켜 준다. 작품의 주인공(특히 남자)은 자기의 심층심리에 깔려 있는 감정을 함부로 表層으로 노출시키지 않으며 심층심리의 세계를 은폐하기 위해 겉으로 몰인정한 것 같은 성격유형을 형성하고 있는 文體다.

3) 橫步의 경우 작품속 ‘남자’는 피해의식이라는 심층심리에 사로잡혀 있고 손해보고 유린당하여 인간의 진실성을 짓밟히고 있는 성격유형으로 부각시키고 있다. 특히 ‘표본실의 청개구리’에서는 4종류의 등장인물들이 하나로 오우버랩되는 四重奏的 同質化가 일어나고 있는 특이한 성격유형이 부각된다.

橫步는 조금도 여자를 美化시키거나 승화시키지 않고 다만 인물설정의 균형을 이루기 위하여 내세운 것 같은, 작중의 ‘남자’ 주인공을 부각시키기 위한 배경으로 설정해 놓은 것 같은 그러한 성격유형들로 이루어진 文體다.

여기서 성격유형상으로 나타나는 작가개개인의 특이성을 통하여 개인의 文體를 비교 검토해 볼 수 있었다. 그렇다면 3인 작가의 작품에서, 이렇다면 등장인물의 성격상 공통성을 엿볼 수는 없을까? ‘남자’들이 사회적으로 그다지 탐탁한 人物로서 존경과 신뢰를 받을 만한 성격유형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춘원의 작품 가운데 나타나는 人物들의 성격유형이 原型(Archetype)에 가까운 것이었다면 그 이후에 나타나는 작가의 작중인물들은 이러한 原型에서 멀어지고 있는 영향을 띤다는 것인데 이것은 近代小說에서 現代小說로 넘어 오기까지의 과도기에서 시대적인 배경상으로 나타난 ‘時代의 文體’를 유추해 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과, 또 하나의 공통성은 3인의 작품 모두의 人物들은 결코 典型性typical character을 띤 성격유형을 초월하지 않았다는, 말하자면 ‘창조적인 人物’의 性格유형은 하나도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이 역시 近代小說的 ‘時代의 文體’로써 지적해 낼 수 있는 점이 아닐까 하는 견해이다.

### 참고한 책들

- 李符永; 分析心理學, 一潮閣, 서울, 1978.
- 칼빈. S. 폴(이용호 translated), 프로이트心理學入門, 백조 출판사, 서울
- 金宇鍾, 現代小說의 理解, 三友出版社, 서울, 1978.
- 한국문인협회편, 韓國短篇文學大系 I·II, 三省出版社, 서울, 1974.
- 李在統; 韓國短篇小說研究, 一潮閣, 1977.
- 金鵬九 外; 佛文學史, 一潮閣, 서울, 1971
- 洪承五, Marcel Proust의 小說研究(1), 韓國佛語佛文學會, 佛語佛文學研究, 第八輯, 서울 1973
- Jolande Jacobi; The Psychology of C.G. Jung, Yale Univ. Press. 1973.
- Sigmund Freud; Vorlesungen zur Einführung in die Psychoanalyse, Great Books 83, 1977.